

◆ 서울무용센터 소개	3
◆ 2018년 서울무용센터 프로그램	4
◆ 2017년 서울무용센터 애뉴얼 리포트	
1) 예술지원사업	10
2) 서울국제안무워크숍(SICW)	14
3) 국제레지던스 오픈콜	18
4) 해외안무가 교환 프로그램(Space RED)	22
5) 댄스필름 프로젝트 TAKE#	25
6) 웹진 [춤·in]	30
7) (PAMS Link)서울무용센터 쇼케이스	32
8) 예술가 역량강화 아카데미	33
9) 무용인 네트워크 프로그램	34
◆ 서울무용센터 시설안내 및 대관	37



서울무용센터 전경 ©서울문화재단

서울무용센터 Seoul Dance Center

서부도로교통사업소 이전에 따른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2011년 5월 개관한 흥은예술창작센터는 무용과 무용 연계 가능한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집중 지원해왔습니다. 2015년 6월, 무용예술에 집중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리모델링하고 명칭을 서울무용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2016년 4월 개관하여 무용창작지원사업(최초예술지원, 서울청년예술단, 유망예술지원, 예술작품지원, 공연장상주단체지원, 다년간지원)과 국제교류사업, 댄스필름 프로젝트, 웹진 [춤:in], 무용인을 위한 호스텔 및 연습실 운영 등을 통해 한국 무용생태계를 조망하고 지원하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용과 무용인, 그리고 관객과의 관계, 무용예술의 가능성을 실험하며 함께 손을 맞잡는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Seoul Art Space_ HONGEUN which opened in May, 2011 in an idle space created due to relocation of Seobu Road Transportation Office has intensively supported creative activities of dance artists and the activities which can be connected with dance. In June of 2015, the center was remodelled to build infrastructure to focus on dance art and its name changed into Seoul Dance Center. It reopened in April of 2016 and has been operated as a space to view and support Korean dance ecosystem by running projects to support dance creation activities (Initial Artist, Seoul Youth Arts Group, Promising Artist, Dance Performance, and Company residing in theaters), international exchange projects, Dance Film project, Webzine Choom:in and rehearsal rooms and hostels for those who are involved in the dance field. We would like to be a space where all of involved people share their fundamental concerns such as relationship among dance, those who are involved in the dance field, and audience, and what dance art is and go hand in hand with each other.

2018년 서울무용센터 프로그램

2018 Seoul Dance Center Program

1. 예술지원사업 Arts Creation Support

◆ 최초예술지원 Supporting Initial Artists

새롭게 예술활동을 시작하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예술가를 위한 사업으로 신진 예술가의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합니다.

This project provides support for rising artists who have just started artistic activities and have growth potential to do experimental and challenging creation.

- 모집시기 : 2018년 상반기 예정(연 2회)

- 대상 : 공공지원금 수혜 경력이 없는 39세 이하 혹은 데뷔 10년 이하의 예술인

- 지원사항 : 창작지원금

◆ 서울청년예술단 Seoul Youth Arts Groups

단기 예술경력을 보유한 청년예술단체의 지속적인 예술창작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예술 현장에 정착하고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This project is for young artist groups who have short-term art career to do their continuous artistic creating activities. It encourages them to adjust to the artistic realm, prepare basis for independence and promote stable activities.

- 모집시기 : 2018년 상반기 예정(연 1회)

- 대상 : 39세 이하 혹은 설립 10년 이하의 문화예술단체

- 지원사항 : 창작지원금

◆ 유망예술지원 닷 dot Dot(Dance on/off theatre), supporting promising artists

무용분야 유망예술가 발굴, 성장 도모 및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새로운 예술 흐름을 선도하는 무용예술가의 창작을 지원하며, 창작지원금, 공간, 인큐베이팅을 결합한 입체적 제작지원시스템입니다.

This project supports creative activities of promising artists in the dance field who lead a new artistic trend after discovering them for encouraging their growth and strengthening their capabilities of cration.

- 모집시기 : 격년도(2년) 지원으로 2019년 공고 예정

- 대상 : 데뷔 10년 이하의 안무가, 예술가(단체) (직접 연출/안무/총괄기획한 작품을 데뷔작으로 인정하며, 졸업작품 또는 퍼포머, 스태프 등 단순참여 경력 제외)

- 지원사항 : 창작지원금, 연습공간, 작품개발지원(자문/멘토링프로그램), 통합홍보지원

◆ 예술작품지원 Supporting Dance Performances

우수하고 발전가능성 있는 무용 작품을 발굴·육성하여 예술가/단체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공연예술분야의 예술적 역량 강화를 도모합니다. 우수 창작활동 촉진 및 우수 공연의 레퍼토리화를 위한 재공연 지원도 포함합니다.

This project encourages artists and art groups to create works and tries to strengthen artistic capabilities of performance and art fields by discovering and fostering outstanding and potential dance works. It also supports repeat performance for promoting excellent creative activities and building the repertory system of great performances.

- 모집시기 : 2018년 1월

- 대상 : 서울에서 공연예술활동(무용)을 계획한 예술가(단체)

- 지원사항 : 창작지원금

◆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Supporting Company Residing in Theaters

공연장과 예술단체의 상생협력을 통하여 안정된 창작환경에서 공연단체의 예술적 창작역량 강화 및 우수 작품 제작·발표를 촉진하고 공연장 운영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This project is to build a stable environment for creative development through cooperation between theaters and dance company. It provides opportunity for dance companies to strengthen their capabilities of creating works and supports theaters to actively operate the space.

- 모집시기 : 2018년 1월

- 대상 : 공연예술단체

- 지원조건 : 공연장 - 공연장 상주단체(공연예술단체) 간 매칭 및 협약체결
(공연장 당 상주단체의 수는 3개 이내로 제한)

2. 서울국제안무워크숍(SICW) Seoul International Choreography Worksh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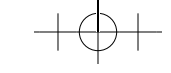
국내에서 활동하는 무용가들에게 동시대의 감각에서 안무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활동하는 컨템포러리 댄스 및 퍼포먼스 아트 분야의 예술가들을 초청하여 안무 메소드, 리서치, 콜라보레이션, 담론 등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펼칩니다.

Seoul International Choreography Workshop places the focus on studying the latest choreographic trends, approaches, and discourses and providing opportunities to choreographers to put themselves on the map of the contemporary art scene. The contemporary artists and performance artists from many other countries share their choreographic method, research.

- 진행일정 : 2018년 7월(예정)

- 대상 : 창작활동 경험이 있는 무용예술가 및 안무에 관심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

- 프로그램 : 안무워크숍 및 아티스트토크 등



3. 국제레지던스공모 Open Call for International Artists in Residency

한국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국내외 예술가들에게 쇼케이스와 네트워킹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 활동의 시발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This project provides a starting point for Korean and foreign artists who want to do creative development in Korea to do by giving them an opportunity for have a showcase and networking.

- 입주기간 : 최대 3개월
- 대상 : 쇼케이스 혹은 워크숍 진행이 가능한 외국 국적의 무용가 혹은 외국거주 한국 안무가
- 지원사항 : 호텔 및 연습실, 제작비, 쇼케이스 및 워크숍 개최지원, 예술가 교류기회 등

4. 해외안무가 교환 프로그램(Space RED) Space Research and Exchange for Dance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움직임 리서치 중심의 국제교류 사업으로 해외 기관과의 아티스트 교류, 국제 워크숍, 아카이빙 사업 등을 통해 움직임에 대한 무용예술가와 타 장르 예술가의 리서치를 지원합니다.

Space RED is an international exchange project centered on research of movement based on space, It supports research of dance artists and artistic involved in other genres on movement through interaction with foreign organizations international workshops, archiving projects, etc.

- 대상 : 한국 안무가
- 지원사항 : 항공권, 체재비 등

5. 댄스필름 프로젝트 TAKE# Dance Film Project TAKE#

안무와 영상 분야 예술가의 공동 작업을 통해 댄스필름을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참여 안무가와 영상감독들은 릴레이 상호티칭 워크숍을 통해 댄스필름 제작을 위한 전문 영역의 지식을 공유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팀별로 댄스필름을 제작합니다.

It is a project to produce Dancefilm through collaboration between choreographer and film artist. Choreographers and film artists work through the Relay Teaching Workshop to share the knowledge of their area of expertise in dance film production and produce dancefilms for each team.

- 진행일정 : 2018년 2월(예정)
- 대상 : 안무와 영상 분야 예술가의 공동 작업을 통해 댄스필름 제작을 희망하는 안무가(개인 및 그룹)와 영상 감독 또는 미디어 작가(개인 및 그룹)
- 지원사항 : 댄스필름 제작 지원금

6. 웹진 [춤:in] Webzine [Choom:in]

무용 분야의 가이드 역할을 위한 가치를 생산하고 고품질의 정보를 공급하며 무용작품 선정작의 홍보와 공연정보 유통 채널을 확보, 나아가 아카이빙 기능을 확장시키기 위한 웹진입니다. 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 및 관객을 위한 콘텐츠를 기획, 유통하여 무용계 소통 창구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The purpose of webzine is to create values for playing a role of a guide for the dance field, provide high quality information, promote selected dance works, secure the channels to distribute performance related information, and expand archiving functions. It functions as a new media in the dance field by planning and distributing contents for artists and audience in diverse fields as well as those who are involved in the dance field.

- 발행일 :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월간)
- 대상 : 예술인 및 시민
- 내용 : 주제별 대담, 공연정보, 예술가정보, 해외소식, 인터뷰, 공연리뷰 등
- 홈페이지주소 : choomin.sfac.or.kr

7. 탄츠메세 참가 지원 TANZMESSE

(재)예술경영지원센터와 협력을 통해 세계 최대의 무용 아트마켓인 독일 탄츠메세(TANZMESSE)에 국내 무용단체들이 진출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국내 무용단체의 진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국가관 운영과 리셉션 개최를 진행합니다.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격년으로 개최되는 무용 특화 플랫폼인 탄츠메세(TANZMESSE)는 국제 무용 관계자 및 기획자, 안무가, 무용단 등이 참가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작품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we support domestic dance artists to enter TANZMESSE, the world's largest dance art market. In addition, we organize the operation of national booth and hold receptions to maximize the effect of domestic dance organizations. TANZMESSE is a dance platform held every two years in Düsseldorf, Germany. International dancers, planners and choreographers attend the market to establish a network and introduce their work.

- 진행일정 : 2018년 8월 29일~9월 1일
- 대상 : 국내무용예술단체



8. (PAMS Link)서울무용센터 쇼케이스 (PAMS Link)Seoul Dance Center Showcase

(재)서울문화재단 서울무용센터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서울아트마켓(PAMS)이 연계하여 ‘(PAMS Link)서울무용센터 쇼케이스’를 진행합니다. 서울무용센터가 소개하는 쇼케이스는 국내외 무용 기획자, 관계자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The Seoul Dance Center and Seoul Arts Market(PAMS) will jointly host the ‘(PAMS Link) Seoul Dance Center Showcase.’ The showcase introduced by the Seoul Dance Center will be held for domestic and overseas dance presenters and stakeholders.

- 진행일정 : 2018년 10월(예정)
- 대상 :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무용예술단체
- 지원사항 : 소정의 쇼케이스 진행비, 연습 및 쇼케이스 공간 등

9. 대관 Venue Rental

예술가 창작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무용센터 무용연습실과 호스텔을 유·무상으로 제공합니다.

Providing dance rehearsal rooms and hostels of Seoul Dance Center for free or receiving fees to revitalize artists' creative works.

- 대관공간 : 무용연습실 5개실, 호스텔 4개실
- 대상 : 무용예술가(단체)
- 대관가능시간 : 10:00~22:00(설/추석 연휴 휴관) (※대관신청기간 및 대관료 개별문의)

서울무용센터 17 에뉴얼 리포트 & 18 프로그램



SPACE RED 리서치워크숍 ©서울문화재단

2017 서울무용센터 애뉴얼 리포트

예술지원사업

◆ 청년예술인 창작지원사업—최초예술지원

‘최초예술지원’은 처음 공공지원금을 받게 되는 청년예술인(단체)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으로, 졸업 후 자신의 분야에서 예술 활동을 갓 시작한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신진 청년예술가들에게 예술창작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최초예술지원은 창작을 위한 사전준비비용을 지원하는 ‘창작준비형’(200만원)과 공연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창작발표형’(500만원~1,500만원)으로 구분되며, 2017년에는 1년에 두 차례로 나누어 무용분야로 총 51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명	청년예술인 창작지원사업(최초예술지원)	
실행 기간	4월	최초예술지원 1차 공모
	6.16	최초예술지원 1차 선정자 발표 및 사업수행(~12월)
	8월	최초예술지원 2차 공모
	10.13	최초예술지원 2차선정자 발표 및 사업수행(~2018.4월)

◇ 2017 최초예술지원 무용분야 선정자(단체)

- 1차 :** 강윤정, 권예진, 김동일, 김영란, 김주빈, 김현신, 김혜경, 누에보 플라멩코 컴퍼니, 댄스프로젝트 점,선,면, 라시내, 박소영, 박진영, 신희무, 양진형, 에바다무용단, 유가원, 이병진, 이주성, 이지희, 임해진, 전보람, 정지영, 천샘, 쿠나디아, 황찬용(25건/개인 및 단체)
- 2차 :** 강소희, 강수빈, 고권금, 고신영, 권선화, 권혁, 김현민, 남유정, 마소정, 박유나, 박진아, 배유리, 양서류와 벗님들, 움아트컴퍼니, 유다정, 이설아, 이용택, 이지현, 이혜민, 장우영, 조인호, 최자인, 최정식, 춤벗, 한경남, 황나남(26건/개인 및 단체)

서울무용센터 17 애뉴얼 리포트 & 18 프로그램

◆ 청년예술인 창작지원사업—유망예술지원 dot

‘유망예술지원사업 dot’은 데뷔 10년 이내의 잠재력 있는 예술가를 발굴하여, 2개년도의 지속지원을 통해 무용예술가들의 창작역량 강화 및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예술가별 공연 형식과 주제에 따라 총 5명이 선정되었으며, 창작지원금 외 홍보, 공간, 전문가 미팅 등 다양한 단계에의 지원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업명	청년예술인 창작지원사업(유망예술지원 dot)	
	4월~5월	유망예술지원 공모
실행 기간	6월~2018.12월	선정자발표 및 사업수행

◇ 2017-2018 유망예술지원 dot 선정자

공영선, 도황주, 정성태, 정수동, 최명현



2017-2018 유망예술지원 dot 선정자
(왼쪽부터)공영선, 최명현, 도황주, 정성태, 정수동 ©서울문화재단

Seoul Dance Center 17 Annual Report & 18 Program

◆ **예술작품지원사업**

‘예술작품지원사업’은 우수하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작품을 발굴 및 육성하여 예술가/단체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공연예술 분야의 예술적 역량 강화 도모하고자 수행되는 지원사업입니다. 2017년도 서울에서 공연예술활동을 계획한 예술단체 및 예술가를 지원하며, 현대무용, 발레, 한국무용(창작) 등의 다양한 세부장르의 작품들이 금년도 총 43건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명	예술작품지원사업	
실행 기간	1월~2월	공모
	3,31	선정자 발표 및 사업수행
	4월~12월	작품별 공연발표

◇ **2017 작품지원사업 무용분야 선정자(단체)**

99아트컴퍼니, Art Project BORA, COMPANY J, garimda dance company, LDP무용단, PDPC, Roh Dance Project, SEO발레단, UBIN Dance, 그룹춤인, 김명숙늘휘무용단, 김선미무용단, 김성훈, 김우진댄스프로젝트, 김지연, 노해진 무용단, 댄스컴퍼니 무이, 댄스씨어터 틱, 댄스컴퍼니 미디우스, 댄스컴퍼니더바디, 리을춤연구원, 리케이댄스, 박나훈무용단, 발레에스티피 협동조합, 블루포엣, 서울현대무용단, 손나예, 숨무브먼트, 아지드현대무용단, 안은미컴퍼니, 양선희, 유니버설발레단, 유정옥, 임선영, 전미숙무용단, 정형일 ballet creative, 최지연 무브먼트, 춤추는여자들, 파사무용단, 한국현대무용협회, 한철SOUL발레단, 한효림 Han댄스프로젝트 무용단, 휴먼스탕스 (총 43건/개인 및 단체)

◆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은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간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연장-상주 공연단체 간 매칭 및 협약 체결을 통하여 총 3개 매칭 건에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선정된 단체는 사업 수행기간 동안 다양한 공연 및 공공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업명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실행 기간	1월	공모
	2월	선정자 발표 및 사업수행(~12월)

◇ **2017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 무용분야 선정단체**

강동아트센터(강동구청)-김성한세컨드네이처댄스컴퍼니
 나루아트센터(광진문화재단)-박명숙댄스씨어터
 노원어울림극장(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W.A컴퍼니



서울국제안무워크숍(SICW) ©서울문화재단

2017 서울무용센터 애뉴얼 리포트

서울국제안무워크숍(SICW)

◆ 서울국제안무워크숍(SICW) 소개

2017 서울국제안무워크숍은 퍼포먼스 아트와 컨템포러리 댄스 분야 국내외 총 7명의 아티스트를 초청하여 안무 워크숍, 아티스트 토크, 피드백 라운드의 형식 안에서 예술가 간 교류를 통해 동시대 안무 경향을 경험하고 탐구하는 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업명	서울국제안무워크숍(SICW)	
워크숍	11.10~11.14	1차 워크숍 진행
	11.15~11.19	2차 워크숍 진행
	11.20~11.24	3차 워크숍 진행
아티스트 토크	11.14	1차 아티스트 토크 진행
	11.18	2차 아티스트 토크 진행
	11.24	3차 아티스트 토크 진행 / 클로징 파티

◇ 2017 서울국제안무워크숍(SICW) 참여 큐레이터 및 강사

강사 : 마랴 모랄리스(Mayra Morales), 장혜진, 빅토리아 하우케(Victoria Hauke), 플로리앙 페이글(Florian Feigl), 임지애, 최문석, 존 제스퍼스(John Jasperse), 이자벨 루이스(Isabel Lewis)

큐레이터 : 김설진, 김재리, 장혜진



(왼쪽부터)마랴 모랄리스, 장혜진, 빅토리아 하우케, 플로리앙 페이글, 임지애, 최문석, 존 제스퍼스, 이자벨 루이스
©서울문화재단

◆ 서울국제안무워크숍(SICW) 프로그램

◇ 1차(1st Term) 2017.11.10.(금)~2017.11.14.(화)

- 마랴 모랄리스(Mayra Morales) & 장혜진 / 멕시코 & 한국

〈교:차 안무 Choreographic Assemblage〉

‘안무적임’ 안의 여러 다른 차원들의 개입과 혼선을 초대하는 안무워크숍이자 실험으로, ‘공동 co-’의 환경을 설정함으로써 서로 간의 창작 교수법(pedagogy)에 어떻게 다가갈지 실험하고 공동창작 기법으로서의 안무 조립의 상호 연관성과 틈새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율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 빅토리아 하우케(Victoria Hauke) / 독일 (2017 국제레지던스 오픈콜 자유공모 선정)

〈창조적 전략과 구조 Creative Strategies and Structures〉

글쓰기, 그림 그리기 실습 및 움직임 함께하는 짧은 영상 등의 방법을 통하여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있는 창의적 영역을 발하는 다양한 전략들을 탐색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다루며 이를 어떻게 확장 시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함께 탐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2차(2nd Term) 2017.11.15.(수)~2017.11.19.(일)

- 플로리앙 페이글(Florian Feigl) / 독일

〈예술적 과정을 향하여 Towards Artistic Process〉

예술 연구란 무엇인가? 예술적 과정이란 무엇인가? 무용과 안무를 실험적 실천으로 보는 작업의 일환으로, 무용과 안무를 “되어감”의 실천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며, “되어감”이 예술적 실천, 연구 및 과정으로 지니는 실질적이고 미적인 측면과 잠재력을 공유하고 논의하며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 임지애 / 한국

〈모음/어너/기록-생각 나누기(Fiction/Dividing/Sharing)〉

모음/어너/기록(몸/언어/기록)은 ‘하기’의 수행적 재료이며 ‘교류와 오류’의 플랫폼으로 작동함에 따라, 창작과정 안에서 발생하는 대상 또는 작은 결과물의 맥락과 구조를 역으로 추적, 추리, 조작하여 과정을 세밀화시켜 이 행위가 워크숍 기간을 넘어 각자의 작업 속에서 어떠한 형태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탐구를 이어나갔습니다.

- 최문석 / 한국

〈BODY THINKING BODY THINKING BODY THINKING BODY THINKING BODY THINKING〉

창작가들의 구체적인 형태를 지니지 않은 몸의 상상력, 즉 상상의 구체화, 이미지화 그리고 몸의 느낌을 현실화하여 움직임의 소재가 되는 것들은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질문을 통하여 스스로 집요하게 합당성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게 하고, 움직임이 실현된 이후에는 다양한 상황을 열어 능동적인 상황으로 변화할 수 있게 하는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 3차(3rd Term) 2017.11.20.(월)~2017.11.24.(금)

- 존 제스퍼스(John Jasperse) / 미국

〈Composition(putting together) as (dis/re)organization〉

다양한 방식의 구성, 해체 그리고 재구성으로서의 조합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참가자 개인의 경험들을 조직화하기 위한 적합한 조직구조를 발견/발명하는 데에 있어서 미술사, 음악, 정치, 과학 및 문법에서 사용되는 조직화 체계들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참가자들은 각자의 필요, 그리고 관심사에 따라 각 조직화 체계를 변형 내지 채택하게 하였습니다.

- 이자벨 루이스(Isabel Lewis) / 미국 2017.11.21.(화)~2017.11.24.(금)

〈Communal E.P.I.C Fiction〉

즉각적이며 협동적인 작품 구성에 대한 실험적 워크숍으로 극이 제작되는 과정에서의 전형적인 요소들의 형식성을 폭로하고, 제작의 과정에 관여하는 이들의 위치가 각 워크숍 참가자들에 의하여 기능적/수행적으로 연기되는 예술적 상황을 설정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참가자들의 창의성에 접근하고 이를 체화해내는 주체성의 가능성을 탐구하였습니다.

◇ 아티스트 토크

#1. 프랙티스 선언 : 우리는 어떻게?(Practice Manifesto: What is our How?) 2017.11.14.(화)

- 아티스트 : 마랴 모랄리스(Mayra Morales), 빅토리아 하우케(Victoria Hauke), 장혜진

- 모더레이터 : 장혜진

작업의 실천적 측면 즉 '프랙티스'에 관해 대화를 나눔으로써 안무에서뿐만 아니라 동시대 예술에서 전반에서 대두되고 있는 프랙티스란 무엇인가? 당신의 프랙티스/How는 무엇인가? 우리가 예술작품을 보는 관행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프랙티스의 '진행됨(on-goingness)'가 우리 육체의 '되기(becoming)'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 과정에서의 비평적 사고와 실현(On Process: critical thinking and practice) 2017.11.18.(토)

- 아티스트 : 플로리안 페이글(Florian Feigl), 임지애

- 모더레이터 : 김재리

작업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평적, 창의적, 생산적 생각들과 실천들에 대해 이야기로, 90년대 이후 컨템퍼러리 댄스와 공연예술에서 강조되어왔던 '과정' 중심의 작업들은 지금의 안무와 어떤 연결점을 맺고 있으며 예술의 지형을 어떻게 변화시켜왔는가?에 대해서 토론하였습니다.

#3. 안무 실천에서의 구성(Composition in Choreographic Practice) 2017.11.24.(금)

- 아티스트 : 존 제스퍼스(John Jasperse), 이자벨 루이스(Isabel Lewis)

- 모더레이터 : 김재리

안무가의 작업에서 '실제로 구성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안무의 개념적 정의에 접근하고, 예술 작업에서 구성, 즉 콤포지션(composition)이 새로운 것의 창조보다는 안무가의 의도에 따라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취합하여 질서를 부여하는 것을 강조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움직임의 나열하는 전통적인 구성에서 벗어나 어떤 안무적 재료들을 구성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울무용센터 17 에누얼 리포트 & 18 프로그램



SICW
Seoul
International
Choreography
Workshop

2017
서울국제
안무워크숍
SICW

2017. 11. 10 Fri - 11. 24 Fri

장소
서울무용센터

주최·주관
서울무용센터

2017 서울국제안무워크숍(SICW) 포스터 ©서울문화재단

2017 서울무용센터 애뉴얼 리포트

국제레지던스 오픈콜

◆ 국제레지던스 오픈콜

한국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국내외 예술가들에게 쇼케이스와 네트워킹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 활동의 시발점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13명(팀)의 예술가들이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입주(체류) 기간 동안 각각 일반인 혹은 예술가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과 쇼케이스를 진행하였고, 호스텔, 연습실 등 서울무용센터 공간 지원과 함께 국내 무용가 또는 타 입주예술가와의 네트워킹 자리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사업명	국제레지던스 오픈콜	
실행 기간	02.01~03.03	Pilot Fishes(2016년 선정)
	02.13~03.25	정다슬(2016년 선정)
	05.12~05.30	Compagnie Corée'graphie(남영호)
	05.25~06.30	우구루
	06.05~06.30	윤지현
	06.16~06.18	이마무라 타츠노리(今村 達紀)
	07.11~07.31	Total 2017
	08.11~09.17	조용민
	09.19~09.30	Something Machine
	10.11~11.10	박소영
	10.11~11.10	이인경
	10.17~11.02	조이 라비노비치(Zoe Rabinowitz)
	11.05~12.08	빅토리아 하우케(Victoria Hauke)

서울무용센터 17 애뉴얼 리포트 & 18 프로그램

◆ 국제레지던스 오픈콜 프로그램

◇ PILOT FISHES (2016년 선정)

[PILOT FISHES' Workshop] 워크숍 : 2017.02.11.(토)~2017.02.12.(일)

움직임+사운드+텍스트의 세 축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워크숍으로 텍스트가 어떻게 음악성을 자극하고, 그 자극이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이미지가 되는지 실험하였습니다.

[SOLOS : Almanac & C'est Confidentiel] 쇼케이스 : 2017.2.24.(금)

- ALMANAC : Alina Bilkon의 솔로 쇼케이스로 전통의 지혜와 미신적인 믿음, 그리고 다채로운 민족적 상징들이 말이 필요 없이 연결된 형태와 사실과 허구의 문화들을 춤과 음악으로 묘사하였습니다.

- C'est Confidentiel : Léa Rault의 솔로 쇼케이스로 저항과 투쟁에 대한 다른 개념들에 대한 연구를 보여주었습니다.

◇ 정다슬 & 요하네스 칼(Johannes Karl) (2016년 선정)

[당신이 그것에 대해 알고 싶었던 모든 것] 오픈 리허설 : 2017.03.25.(토)

성(性) 기준으로 나의 몸과 네 몸의 대화를 해체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해체 과정에서 몸을 배제한 춤을 표현하였습니다. 춤의 단위가 되는 배제한 몸이 과연 공연 안에서 어떤 의미와 개념을 생성시킬 수 있는지 실험하고, 이성 언어와 감각적인 몸의 언어가 가지는 언어의 한계와 유연성을 탐구하였습니다.

◇ Compagnie Corée'graphie(남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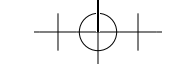
[무용수를 위한 워크숍] 워크숍 : 2017.05.20.(토)~2017.05.21.(일)/ 오픈토크 : 2017.05.21.(일)

몸 기능과 인식에 근거한 신체훈련으로, '알렉산더 방법론'과 '바디 마인 센터링'에 바탕을 두고 반복을 통한 몸 인식을 구축하여 몸의 한 부분에 집중하고, 직접적인 몸 체험을 바탕으로 탐구, 발전시켜 나가고 움직임의 질, 몸 내부자세 개개인의 움직임들을 집중적으로 탐구하였습니다.

◇ 우구루

[Free Flow in Seoul #2. 창작의 근본으로서 인체에 대한 재인식] 워크숍 : 2017.06.01.(목)~2017.06.16.(금)

몸에 대한 신뢰를 되찾아 정신(의식)과 움직임 사이의 간극을 무너뜨리고, 그 본래의 흐름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몸의 근본적인 감각을 되살리는 훈련을 통해 정신과 하나로 결합한 몸은 그 존재의 실체로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며, 창조적 역량은 몸이 바로 그 자신으로서 자유롭게 존재할 때 극대화됨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 이마무라 타츠노리(今村 達紀)

[About Stopping] 워크숍 : 2017.06.16.(금)~2017.06.18.(일)

호흡과 정지에 집중하는 워크숍으로 의식적인 호흡으로 시작하여 움직임을 멈추고 호흡을 멈춤으로써 움직임과 호흡을 멈추고 신체로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Trace Tag] 쇼케이스 : 2017.06.23.(금)

‘매일 우리는 흔적을 남고 그 흔적은 가끔 추적하고 가끔은 사라진다.’를 중심으로 레지던스 기간에 만든 흔적과 그 조각의 연속에 대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 윤지현

[Choreographic Practice Workshop] 워크숍 : 2017.06.19.(월)~2017.06.23.(금) / 쇼케이스 : 2017.06.23.(금)

다양한 안무적 방법론을 관찰, 분석, 실험하고 유럽 예술 교육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접근법과 유용한 지식을 나누고, 나아가 스스로의 창작 방식을 재발견, 확립 또는 검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워크숍 기간에 완성된 각자의 작업을 발표하고 서로의 피드백을 통하여 워크숍을 완성하였습니다.

◇ Total 2017

[Visions/Versions] 워크숍 : 2017.07.17.(월)~2017.07.19.(수)

듀엣과 트리오에 중점을 둔 안무적 구조를 탐구하고, 복사/붙이기, 반복, 변화의 요소에 어떻게 영감을 받아 춤을 창작하거나 형태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에 연구하였습니다.

[경험의 조각 (Fragments of Experience)] 쇼케이스 : 2017.07.28.(금)

자유로움과 구조 사이의 상호작용 가능성에서 출발한 Total 2017의 협업 방법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며, 완성된 이야기가 있는 일반적인 공연의 형식이 아닌 3주간의 공동 작업을 통해서 나타난 경험의 조각들을 꺼내 보이는 쇼케이스를 진행하였습니다.

◇ 조용민

[Bridging Lines-SDC] 워크숍 : 2017.09.11.(월)~2017.09.15.(금) / 쇼케이스 : 2017.09.15.(금)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지나쳐버리는 제스처, 움직임들과 서울무용센터가 가진 건축적인 공간과의 구성과 조화의 연결성을 찾는 작업으로, 몸의 언어로 이어지는 이미지들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새롭게 해석해 볼 수 있었습니다.

◇ Something Machine

[The 2nd Excessive Rudeness] 쇼케이스 : 2017.09.28.(목)

‘관찰, 관찰하다, 관찰당하다.’ 관찰은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처음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자 주변과 소통하기 위한 수단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영향력 있는 방식으로, 감시를 소셜미디어의 구경거리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이 관찰이라는 게임에 계속해서 감시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 이인경 & 크리스토퍼(Christopher A.Miller)

[Body, a Living Archive] 워크숍 : 2017.10.16.(월)~2017.10.24.(화) / 쇼케이스 : 2017.10.24.(화)

공연예술의 전형적인 아카이빙/보존 형식에 대한 제한된 개념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독창적인 방법을 찾아나가는 데 중점을 둬으로써, 공연예술을 인식하고 보존하는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법들을 시도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공연을 창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조이 라비노비츠(Zoe Rabinowitz)

[Memory Mapping : Contemporary Dance Improvisation Workshop]

워크숍 : 2017.10.24.(화)~2017.10.27.(금)

모든 단계의 무용수들에게 코어의 힘과, 해부학적 가지런함 그리고 움직임 탐구에 집중하여 기술적, 예술적 탐구의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워크숍은 느낌과 기억을 통한 공간 탐구를 위한 즉흥 연습으로 이어지며, 참여자들은 소재, 기간, 다양성 그리고 리듬을 사용하여 개인사에서 얻어진 신체적인 3차원 맵(3-D maps)을 만들어나갔습니다.

◇ 박소영

[수:움,다리] 워크숍 : 2017.10.27.(금)~2017.10.28.(토)

백두대간 지체의 줄기와 근역강산맹호기상도(權域江山猛虎氣象圖)를 차용하여, 비유기체-유기체적 생명의 기관인 동시에 다양한 감각-판으로 이루어진 서사적 이야기로 해당 워크숍은 옛 자아를 잊고 진정한 생명이 탄생하는 존재적 의식의 감각기관의 영역을 현-세계로 이끌어 보았습니다.

서울무용센터 17 에듀얼 리포트 & 18 프로그램



국제레지던스 오픈콜 ©서울문화재단



2017 서울무용센터 애뉴얼 리포트

해외안무가 교환 프로그램(Space RED)

◆ 해외안무가 교환 프로그램(Space RED)

Space RED는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서울무용센터의 움직임 리서치 중심의 국제교류 사업으로, 현재 미국 뉴욕의 무브먼트 리서치(Movement Research), 독일 함부르크의 케이쓰리(K3 Tanzplan Hamburg), 일본 교토의 교토아트센터(Kyoto Art Center)와의 안무가 교환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업명	Space RED	
실행 기간	무브먼트 리서치(MR)	- 황수현 선정 : 2017.1.8~2017.2.7 - 우슬라 이글리(Ursula Eagly) 선정 : 2017.10.16~2017.11.4
	케이쓰리 (K3)	- 김이슬 선정 : 2017.8.7~2017.9.6 - 패트리시아 캐롤린 마이(Patricia Carolin Mai) 선정 : 2017.7.24~2017.9.17
	교토아트센터 (KAC)	- 서경선 선정 : 2016.12.1~2017.1.1 - 교고쿠 토모히코(京極 朋彦) 선정 : 2017.5.20~2017.6.30

◇ 2017 Space RED 파트너 기관과 참여 안무가

MR - 황수현, 우슬라 이글리(Ursula Eagly)

K3 - 김이슬, 패트리시아 캐롤린 마이(Patricia Carolin Mai)

KAC - 서경선, 교고쿠 토모히코(京極 朋彦)



◆ 리서치 워크숍 : 패트리시아 캐롤린 마이, 황수현, 서경선

서울무용센터가 세 명의 안무가의 리서치를 지원하고 안무가는 리서치 내용을 바탕으로 워크숍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워크숍에 따라 참여자 각자가 하나의 방법으로 자신의 리서치를 발전시키는 과정, 또는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참여자들이 서로 함께 리서치를 이어가는 방법 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K3] 패트리시아 캐롤린 마이(Patricia Carolin Mai)

[Bodies in states of emergency] 워크숍 : 2017.07.31.(월)~2017.08.04.(금)

패트리시아 캐롤린 마이(Patricia Carolin Mai)의 듀엣 작품 <Ready to Snap>을 위한 리서치 작업에 토대를 두고 가장 넓은 의미에서 개인적인 움직임의 아카이브를 스스로 탐색해보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기억과 그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확장함으로써 스스로 기억 공간과 감정적 풍경을 가로질러 움직이게 됨을 표현하였습니다.

[Ready to Snap] 쇼케이스 : 2017.09.15.(금)

위험한 상황에서의 신체 반응을 관찰하여, 안무가 4명에게 그들이 처했던 극한 상황의 경험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경험을 듣는 동안 떠오르는 신체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신체의 이미지와 움직임을 찾고, 신체는 공격과 탈출, 부드러움과 잔인함, 실신과 통제 사이를 끊임없이 오감을 나타냈습니다.

◇ [MR] 황수현

[아우라 co-research] 워크숍 : 2017.08.07.(월)~2017.08.11.(금)

안무 과정 중 기본 단위가 되는 컨셉과 아이디어를 선실험 해보는 리서치 워크숍으로, 공연예술 형식 안에서 '아우라란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춤추는 몸에서 발생하는 아우라를 다뤘습니다. 아우라를 발생시키는 다양한 요소들에 다각도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추상적인 개념이 구체화 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질문과 오류들을 수집, 분석하여 공유하였습니다.

◇ [KAC] 서경선

[내밀한 힘의 한 컷] 워크숍 : 2017.08.08.(화)~2017.08.11.(금)

본 워크숍의 주제는 '여성'으로 사회관습과 교육에 의해 왜곡되어 규정된 이야기들, 아인슈타인 아내 밀레바 마리치, 이탈리아 최초 여의사 마리아 몬테소리 우리나라 최초 여성화가 나혜성 등 '수많은 나'의 이야기들을 다뤄, 인생의 변곡점에서 스스로가 발현했던 내적인 힘들을 몸으로 찾아보았습니다.

◇ [KAC]코고쿠 토모히코(京極 朋彦)

[Open Workshop] 워크숍 : 2017.05.24.(수)~2017.05.26.(금)

아티스트와 춤, 연기, 신체, 음성에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으로, 음성과 호흡을 활용한 간단한 워밍업으로 시작하여 숙련된 무용 테크닉보다는 함께 신체를 다루고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 본질에 다가가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Dancers & Choreographers Workshop] 워크숍 : 2017.06.07.(수)~2017.06.09.(금)

코고쿠의 메소드(부정확한 언어들(inaccurate languages), 신체의 반대편(opposite body)등)를 사용하여 새로운 신체의 현상을 찾아내고, 뼈와 근육만을 사용하지 않고 호흡, 음성, 개념, 사유 그리고 모든 것을 이용하여 무용의 가장자리(edge of dance)에 다가가고자 하였습니다.

[1 steps/6 touch] 쇼케이스 : 2017.06.23.(금)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첫 번째 '단계'이며, 여섯 명의 무용수들과 첫 번째 '접촉'으로 한국을 잘 알게 하는 첫 번째 '단계'를 표현하였습니다.

◇ [MR]우슬라 이글리(Ursula Eagly)

[거울 뉴런 살롱/ 거울 뉴런 퍼포먼스 워크숍] 살롱 : 2017.10.25.(수)/ 워크숍 : 2017.11.01.(수)

거울 뉴런과 공감 사이의 연결고리는 무엇인가? 공감과 도덕성 사이의 연결고리는? 무용에서 거울뉴런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가? 대인 관계에 관련된 신경은 공연자와 청중의 역할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알아보고 거울 뉴런에 대한 공연 스코어를 제시하였습니다.

◇ [K3]김이슬

[워크숍 악마의 편집 - 짜르고 붙이고 늘리고 빼고 넣고]

워크숍 : 2017.11.29.(수)~2017.12.11.(월)/ 쇼케이스 : 2017.12.12.(화)

여러가지 스코어의 즉흥을 통한 창작 실험 놀이로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볼 수 없는 것, 볼 필요가 있는 것, 볼 필요가 없는 것, 왜곡된 것, 과장된 것, 생략된 것, 보여주고 싶은 것, 보여주기 싫은 것, 봐서는 안 되는 것들 등을 탐구하고, 그것을 편집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방법들을 함께 찾아보며 놀며 모두가 창작자이자 관객으로서 참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2017 서울무용센터 애뉴얼 리포트

댄스필름 프로젝트TAKE#

◆ 댄스필름 프로젝트 TAKE#

본 사업은 안무와 영상 분야 예술가의 공동 작업을 통해 댄스필름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총 4명의 안무가와 4명의 영상감독들이 매칭을 통해 댄스필름을 제작하고, 과정 중에 릴레이 상호티칭 워크숍을 통해 댄스필름 제작을 위한 각자 전문 영역의 지식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제작된 작품 중에 심의를 통해 1명의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추가 편집이 지원되었습니다.

사업명	댄스필름 프로젝트 TAKE#	
실행 기간	6월	공고
	7월	선정자 발표 및 대면식
	7.22	통합 강의
	8월~9월	릴레이 상호티칭 워크숍
	11.10~11.11	상영회

◇ 2017 댄스필름 프로젝트 TAKE# 참여 영상작가 및 안무가

영상작가 : 강태우, 김대현, 백종관, 이승엽

안무가 : 김동희, 박진영, 쌍방, 임진호, 송주원



◆ 댄스필름 프로젝트 TAKE# 통합강의

날짜	강사	내용
2017년 7월 22일 (토)	김신아	<예술과 소통> 예술, 기술, 사람 그리고 동시대 교류를 중심으로 Videodance, Interactive Performance의 현황을 소개
	오민	<퍼포먼스, 퍼포먼스> 영상과 공연 매체 속에서 달라지는 공간의 개념, 시점, 구조, 그리고 영상과 공연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흔들고, 뒤집고, 결합하는 방식에 관해, 작가의 작업을 중심으로 이야기
	추경엽	<이미지 시간과 춤의 만남>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미지도 시간을 가지고 있다. 어느 시간을 보여줘야 할까?'

◆ 댄스필름 프로젝트 TAKE# 선정자 릴레이 워크숍

◇ 1차

날짜	진행자	내용
2017년 8월 19일 (토)	김동희	댄싱로프와 하네스를 이용한 벽면에서의 움직임에 대한 원리 이론 및 기초 움직임 실습
	김대현	1. 안무가들을 위한 스토리텔링 실습 : 무용가들에게 필요한 스토리텔링 만들기의 기초적인 방법론 실습 2. 카메라 소개 및 실습 : 오스모(DJI OSMO)

◇ 2차

날짜	진행자	내용
2017년 8월 26일 (토)	임진호	어렵다고 생각하는 무용동작에서 벗어나 우리가 쉽게 사용하고 자주 사용하는 손을 통한 움직임을 동작화하는 워크숍 실습
	강태우	영화 속의 댄스필름 : 레오스카락스(Leos Carax) 영화를 중심으로 기존에 쉽게 접할 수 없는 예술영화나 독립영화에서 댄스필름과 관련된 영상 소개

◇ 3차

날짜	진행자	내용
2017년 9월 2일 (토)	박진영	움직임의 속도와 공간에 대칭되는 몸의 이용-움직임의 호흡이라는 기능상체와 하체로 나누어 움직임 실행
	이승엽	댄스필름 촬영 시 안무가가 유의 및 고려해야 할 기본 사항

◇ 4차

날짜	진행자	내용
2017년 9월 9일 (토)	쌍방 (김승록)	발생하는 신체(의미)의 발생과 자유로운 움직임 : 우리의 신체가 가지고 있는 움직임의 가능성들에 대해 알아보고, 나아가 움직임들이 불러일으키는 추상적 의미들을 통해 창조적인 신체 움직임 탐색
	백종관	비디오 로코모션 : 움직임의 시공간을 직조하는 매체 실험들, 크로노포토헤라피부터 모션그래픽 프로그래밍까지 신체의 (비)가시적 움직임을 포착하고 새로운 감각 경험을 반영하고자 했던 시각매체 실험의 역사



내가 죽어 누워 있을 때 ©서울문화재단

◆ **댄스필름 프로젝트 TAKE# 상영회 : 2017.11.10.(금)~2017.11.11.(토)**

◆ **내가 죽어 누워 있을 때(As I lay dying) by 임진호, 강태우**

누군가 죽어 누워 있고, 진호와 경민은 쓸쓸히 빈소를 지키고 있다. 그때 구급차에서 맨발의 여성이 장례식장을 향해 걸어 들어오고 곧장 빈소를 향해간다. 그들은 서로를 알아볼 수 없지만 한때 함께 춤을 췄던 동료들이다.

◆ **내 신발에게(To my shoes) by 김동희, 김대현**

버티칼 댄스의 본질은 수직이다. 가장 큰 의미로 보면 하늘과 땅을 연결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보편적인 춤이 평면과 2차원의 세계에 머물러 있다면 버티칼 댄스는 그 공간을 확장한다. 이 확장된 공간에서 삶과 죽음, 기쁨과 슬픔이 만나면 어떨까? 신발이라는 상징을 통해.

◆ **호접몽(The Butterfly Dream) by 박진영, 이승엽**

모두가 각자 살면서 여러 가지 기준과 가치관에 맞추어 또는 타협하며 살아간다. 그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그 모습은 정답인 것일까?
나는 자신에 대해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과 같을까?
무엇이 나의 본 모습인걸까?

◆ **Unholy Three by 쌍방, 백종관**

무대라는 3차원 공간에 펼쳐지는 세 편의 다른 삼인무를 스크린 위에 쌓아올린다. 세 편의 삼인무를 세 명의 무용수가 재연하고, 그 움직임의 3차원을 분해하고 재구성하여 가상성에 의문을 던지는 입체를 영상 속에 구축한다. 어떤 사상 혹은 이야기가 몸을 통해 표현되는 과정과 그 과정들의 아카이빙에서 촉발되는 작은 역사를, 움직임이라는 환영의 폐허 속에서 되돌아본다.

◆ **반성이 반성을 반영하지 않는 것처럼(Like reflection does not reflect reflection)**

by 송주원(2016년 서울무용센터 댄스필름 우수작)

김수영 <절망>의 시구를 출발점으로 시공간을 확장한 과거와 현재, 가상의 시간을 제안하고 한 여성의 실제 삶의 에피소드를 내러티브로 삶에 대한 사고와 이해 그 실천에 대하여 질문하고 상상한다. 밤과 낮, 같은 듯 다르게 반복되는 상황과 그녀의 행동을 통해 일상의 환타지 속에 매몰된 신체의 감수성을 찾고자 한다.

서울무용센터 17 에뉴얼 리포트 & 18 포럼그림



댄스필름 프로젝트 TAKE# 포스터 ©서울문화재단

2017 서울무용센터 애뉴얼 리포트

웹진 [춤:in]

◆ 웹진 [춤:in]

무용예술 분야의 정보서비스 제공 및 창작물에 관한 담론을 생성하며 나아가 아카이브 역할까지의 확장을 위한 무용전문 웹진입니다. 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 및 관객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무용계 소통창구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사업명	웹진 [춤:in] 월별 주요 기사	
실행 기간	1.26	[춤:in-no.8] 춤과 젠더 - 춤과 젠더 : 춤이 나의 젠더를 생산한다(김재리_무용학자, 드라마투르그)
	2.23	[춤:in-no.9] 통제와 돌봄 - 재할과 무용수, 무용수와 재할(권령은_안무가, 무용가)
	3.30	[춤:in-no.10] 춤과 나이듦(Dance and Aging) - 춤과 함께 나이 든다는 것(권윤희_춤:in 영 프로페셔널 기자)
	4.27	[춤:in-no.11] 삶의 확장 - Shift - 존재와 상태를 선택하기(허영균_춤:in 편집부)
	5.25	[춤:in-no.12] 춤+아카이브, 아카이빙, 아키비스트 - 미래를 위한 오늘의 기록 : 춤 아카이브, 아카이빙, 아키비스트(허영균_춤:in 편집부) - 아카이브와 '안무적인 것'(김재리_무용학자, 드라마투르그)
	6.29	[춤:in-no.13] 춤과 비평문화 - 예술가가 말하는 국내무용비평문화(양은혜_춤:in 편집위원)
	7.27	[춤:in-no.14] 춤과 기록 - 춤과 기록 + (김현주_한국러반움직임연구소 소장, 무용학 박사)
	8.31	[춤:in-no.15] 무용 프로듀싱, 기획, 매니지먼트 - 춤, 기획(자), 매니지먼트(자), 프로듀싱(서),(들)(곽아람_국립현대무용단 기획팀장)

서울무용센터 17 애뉴얼 리포트 & 18 프로그램

사업명	웹진 [춤:in] 월별 주요 기사	
실행 기간	9.28	[춤:in-no.16] 청년 춤인, 지원과 자립 - 청년 지원 사업-돌아보기와 다시보기를 통해 앞서보기(허영균_춤:in 편집부) - 무용과 나온 애들은 뭐하고 살까? - 어느 청년무용가의 삶과 예술(윤상은_안무가, 무용수, 예술가교사)
	10.26	[춤:in-no.17] 카메라와 함께 춤을 - '카메라와 함께 춤을' 댄스필름 영상작가 3인과의 좌담(허영균_춤:in 편집부) - 댄스필름을 둘러싼 안무가들의 대화(양은혜_춤:in 편집위원)
	11.30	[춤:in-no.18] '파트너'-안무적 사고로 협업하기 - '파트' 혹은 '파트너' 로서의 춤과 안무가 : 안무적 사고로 협업하기 (글:김재리_무용학자, 드라마투르그/ 진행 및 정리:허영균_춤:in 편집부)
	12.28	[춤:in-no.19] 2017년 춤인이 만난 사람들 - [춤:in]의 한해를 돌아보며 진행된 예술가들의 영상인터뷰(춤:in 편집부)



웹진 [춤:in] 18호 ©서울문화재단

Seoul Dance Center 17 Annual Report & 18 Program

2017 서울무용센터 애뉴얼 리포트

2017 PAMS Link 서울무용센터 쇼케이스

◆ 2017 (PAMS Link)서울무용센터 쇼케이스

(재)서울문화재단 서울무용센터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서울아트마켓(PAMS)이 연계하여 '2017 (PAMS Link)서울무용센터 쇼케이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서울무용센터가 자신 있게 소개하는 4명의 유망무용예술가와 함께한 본 쇼케이스는 국내외 무용 기획자, 관계자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서울아트마켓(PAMS) 참석을 위해 내한한 해외 무용 프리젠터(Presenter)와 아티스트들에게 서울무용센터를 소개하고 국내 유망한 무용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사업명	2017 PAMS Link 서울무용센터 쇼케이스	
실행 기간	8월	공모 및 선정자 발표
	10.14	서울무용센터 쇼케이스

◇ 2017 서울무용센터 쇼케이스(서울아트마켓(PAMS) 연계) 참여 안무가

뮌, M.D.B.(이상훈, 박세기, Remi klemensiewicz), 최민선×강진안프로젝트, Soo d Art&Co(정수동)



2017 (PAMS Link)서울무용센터 쇼케이스 ©서울문화재단

2017 서울무용센터 애뉴얼 리포트

예술가 역량강화 아카데미

◆ 예술가 역량강화 아카데미

안무가, 무용수 그 외 무용 연계 공연예술가들 모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되는 아카데미 사업으로 2017년에는 안무워크숍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업명	예술가 역량강화 아카데미	
실행 기간	3.20~3.25	정영두 [동풍이 불어올 때]
	4.17~4.20	김설진 [Play Body #Surrealism]
	5.8~5.14	원원명 [Harmonious Man]



예술가 역량강화 아카데미 ©서울문화재단

2017 서울무용센터 애뉴얼 리포트

무용인 네트워크 프로그램

◆ 서울무용센터 웹진 [춤:in] 발간 1주년 기념 네트워크파티 ‘눈맞춤:인’

올해 6월 23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무용 전문 웹진 [춤:in]의 발간 1주년을 맞아 온라인 정보교류 플랫폼의 역할을 오프라인으로 확장함에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무용예술인들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원기관-예술가간 네트워킹 프로그램과 [춤:in]콘텐츠로 엮어낸 전시, 워크숍, 플리마켓 등 다양한 기획프로그램을 통해 무용예술계교류 활성화를 위한 축제로 진행되었습니다.

- 참여 유관기관 : 주한영문화원, 주한독일문화원,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제공연예술프로젝트, SIDANCE, 서울무용제, 창무국제무용제, 천안흥타령축제, 예술경영지원센터(서울아트마켓), 플랫폼엘, 신촌극장, 행화탕,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아시아나항공, 한국메세나협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 한국예술종합학교 청년예술가 일자리지원센터 관계자 총 30여명
- 참여 예술가 : 무용가, 안무가, 기획자, 평론가 등 무용예술가 총 80여명



웹진 [춤:in] 발간 1주년 기념 네트워크파티 ‘눈맞춤:인’ ©서울문화재단

◆ 서울무용센터 ‘청년무용담(靑年舞踊談)’

9월 22일 서울무용센터 야외마당에서 진행된 ‘청년무용담(靑年舞踊談)’은 그동안 틀에 박힌 토론 방식에서 탈피해 청년 무용예술가들이 직접 터놓고 얘기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기존의 소셜미디어를 통한 온라인 모임이나 학교 중심의 네트워크에서 벗어나 무용계에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한자리에 모여 모색하고,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창작환경, 지원사업 등에 대한 솔직한 생각과 고민을 나누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예술가들이 현장에서 느꼈던 다양한 에피소드를 공유하는 ‘대놓고 돌직구’, 이상과 현실의 중간 지점에서의 고민을 다루는 ‘로망vs현실 :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 그리고 무용계에서의 우리 모두가 맞이할 전성기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늦은 걸까, 아직일까 : 내 인생의 전성기’ 등을 주제로 토론해 보는 프로그램과 더불어, 무작위로 꺼낸 주제와 이슈 키워드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프로그램 역시 마련하여 무용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연극/음악/다원 등)의 청년예술가들과 기획자들이 모여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무용센터 청년무용담(靑年舞踊談) ©서울문화재단



서울무용센터 청년무용담(靑年舞踊談)©서울문화재단

서울무용센터 시설안내



서울무용센터 대관

◆ 대관료 및 대관시간 안내 (※부가세 포함 가격)

구분	제1용도	사용료	시간	제2용도	사용료	시간
예술가의 방	호스텔 (1인/1실)	11,000원	1일		-	
	호스텔 (2인/1실)	16,500원	1일		-	
스튜디오 블랙	무용연습	16,500원	오전 (10시~14시)	리허설/셋업	110,000원	종일 (10시~22시)
		22,000원	오후 (14시~18시)	쇼케이스 등 행사	165,000원	종일 (10시~22시)
		22,000원	저녁 (18시~22시)			
스튜디오 화이트	무용연습	16,500원	오전 (10시~14시)	리허설/셋업	110,000원	종일 (10시~22시)
		22,000원	오후 (14시~18시)	쇼케이스 등 행사	165,000원	종일 (10시~22시)
		22,000원	저녁 (18시~22시)			
무용연습실 1	무용연습	16,500원	오전 (10시~14시)	워크숍 등 다목적 문화예술 행사	22,000원	오전 (10시~14시)
		22,000원	오후 (14시~18시)		33,000원	오후 (14시~18시)
		22,000원	저녁 (18시~22시)		33,000원	저녁 (18시~22시)
55,000원	종일 (10시~22시)					
무용연습실 2~3	무용연습	16,500원	오전 (10시~14시)		-	
		22,000원	오후 (14시~18시)		-	
		22,000원	저녁 (18시~22시)		-	

서울무용센터 17 에뉴얼 리포트 & 18 프로그램

◆ 대관대상

- 무용연습실 : 무용 연습 및 무용 관련 행사(쇼케이스 등) 진행
※전문예술가의 창작활동에만 대관 가능
- 호스텔 :
 - 1) 서울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가로 15일 이내에 서울 지역 내 공연장에서 공연 계획이 있는 자
 - 2) 해외거주 무용예술가 혹은 무용장르 관련 예술가(내/외국인)

◆ 신청서 제출기간

- 공고 후 사용 시작일로부터 2주 전 신청
- ※촉박하게 신청할 경우 승인 불가

◆ 신청방법

- 이메일로 신청서 제출
(dancercenter@sfac.or.kr)

◆ 제출서류

- 대관신청서(용도별 지정양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해당사항 있을시), 호스텔 대관자의 경우 신분증 앞면(여권사본 등) 및 공연 증빙 자료(내국인이 신청할 경우)

◆ 승인절차

- 1) 대관신청 : 이메일(dancercenter@sfac.or.kr)을 통해 대관 신청
 - 단체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포함
 - 개인일 경우 신분증 사본 첨부하지 않음(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2) 대관승인 : 신청서 검토 및 대관 취지 부합 여부 검토 후 승인
- 3) 대관료 입금 : 대관료와 입금절차를 메일로 안내
 - 공간 사용 전 입금 완료
 - 안내 후 5일 이내 대관료 미납시 대관 신청 자동 취소
 - 신청자와 동일한 이름으로 입금
- 4) 대관완료/공간사용 : 입금 확인완료 후 대관승인 절차 완료
 - 신청자의 신청에 따라 세금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 발행
- 5) 대관취소 : 대관 담당자와 사의 후 대관 취소절차 진행(필요 시)
 - 최소 사용 일주일 전에 취소신청서 제출
 - 당일취소 및 취소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취소 신청은 접수 불가

서울문화재단 서울무용센터

발행인 주철환
기획 서울무용센터
디자인·제작 글자와 기록사이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발행일 2018.01.

Copyright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이 책에 수록된 도판 및 글의 저작권은 서울문화재단에 있습니다.
도판과 텍스트를 사용하시려면 미리 저작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무용센터 Seoul Dance Center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지2길 14
14, Myeongji 2-gil, Seodaemun-gu, Seoul, Korea
T. +82 2 304 9100 F. +82 2 304 9731